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연구문제
3. 용어의 정의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흔히들 지역감정 또는 지역갈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역감정 또는 지역갈등의 문제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병폐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지역 간 갈등이나 감정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지역민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지역할거주의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역갈등의 문제는 점차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2000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가 자기 지역 출신 출마자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경향으로 나타남으로써 뚜렷이 표출되었다. 특히 영·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역감정이나 지역갈등의 문제는 단순히 지역 간의 갈등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광주민주화 운동 이후 많은 학술발표대회나 학술지에서 이 문제는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그 해소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우리 사회에서 지역감정의 실태가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감정이 세대간 또는 세대 내에서 어떻게 전달되는가 즉, 지역감정에 대한 사회화(socialization)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혜숙, 1992).

지역감정의 구성요소인 고정관념의 내용이나 편견은 부모, 친척, 동료,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사회화되고, 이것이 2세에게 전이되어 부모, 친척들이 나타내는 지역태도에의 동일화가 일어나 비슷한 지역감정을 보이게 된다(윤근섭, 1990).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81.7%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정과 이웃에서 지역감정에 관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즉, 부모, 형제, 자매, 친척,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상대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부정적, 편견적 속성의 제 정향을 학습한다는 것이다.

영·호남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2.6%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지역감정의 사회화를 경험하고 93.8%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지역감정의 사회화가 수행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주로 어디에서 지역감정을 형성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가족(1.4%), 학교(3.5%), 친구(4.3%)보다는 이웃(18.0%)의 영향력이 크고, 또 그보다는 군대(39.2%)나 기타(31.9%)가 지역감정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메스컴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데 기여했는가”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35.4%, ‘약간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38.2%로 전체 응답자의 73.6%가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박용남, 1989).

한편, 학교나 교사를 통한 지역감정 연사의 경험비율은 조사한 대학생 전체의 53.7%에 이르고, 전체의 92.1%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선생님을 통해 지역 감정적 연사를 경험했음을 보여줌으로써 학교교육을 통한 지역감정 사회화의 심각성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감정이 청소년기의 사회화과정에서부터 학습에 의해 내면화되기 쉽고, 따라서 청소년들을 왜곡된 지역적 편견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지역감정 형성의 원인과 지역감정 형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치적 균열현상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지역감정에 대한 태도와 인식 및 청소년 시기에 지역감정이 사회화되어지는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감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지역감정의 실태를 살펴보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역감정이 사회화되어 가는 통로를 끊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회화의 과정에서 누가, 누구로부터,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배우는가하는 문제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인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해 지역감정의 문제에 관련된 청소년들의 의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지역감정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문제

지역감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1959년에 “팔도인의 성격특성에 대한 선입 관념”이라는 연구가 이진숙에 의해 처음 이루어진 이래 1980년대 중반까지 불과 몇 편의 논문이 있었을 뿐이나, 1987년과 1988년 양대 선거를 전후하여 지역감정이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로 대두된 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 동안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역감정의 원인 규명과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고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정치학 그리고 경제학과 언론학 등 여러 학문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감정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심리학회(1989)와 한국사회학회(1989)가 전 학회 차원에서 수행한 종합적인 연구를 토대로 대규모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이 분야의 체계화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국회의 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1991)는 서울과 호남, 영남 및 충청지역의 6개 대학 부설연구소(서울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한남대)에 지역감정 해소방안 연구를 의뢰하여 '당해 지역별 입장과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을 통해 연구된 결과 및 수 차례 공청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묶어 '지역감정해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민간차원의 운동으로 발족한 지역감정해소 국민운동협의회에서 개최한 수 차례의 세미나 등도 지역감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문적 연구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역감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7년 이후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구의 역사가 일천하다. 아울러 기존의 연구들의 경우에 있어서 비록 다양한 접근방식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지역감정 해소방안의 제시에 있어서는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지역감정 해소의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지역감정의 초기 사회화 과정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청소년들의 지역감정에 대한 태도와 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제도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부언의 여지가 없으나, 이와 함께 국민의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을 지역적 편견에 구애 없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감정의 문제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검토하여 지역문제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갈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이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감정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감정 형성 요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지역감정의 원인으로 ①사회·문화적 요인인 고정관념, 편견, 차별행동(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89;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89; 김진국, 1977; 김혜숙, 1989), ②역사적 소외와 정치적 차별에 따른 소외의식과 피해의식(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③경제적 격차(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④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의 왜곡된 보도책임(김영호, 1992), ⑤혈연, 지연, 학연 중시의 사회통념(한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89), ⑥가정, 학교, 군대생활을 통한 학습(김동영, 1994)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지역감정의 사회화 과정과 사회화 매체를 조사하였다. 즉, 지역감정과 사회화 매체(가정, 친구, 교사, 이웃, 언론매체)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셋째, 청소년들의 지역감정 실태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지역, 성, 계층에 따른 청소년들의 지역감정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토하였다. 영·호남 고등학생들의 지역감정 실태에 관한 김동영(1994)의 연구에 따르면 영·호남 전체적으로 81.1%가 지역감정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쪽의 반응을 보였으며 71.1%가 지역감정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반응하였다.

넷째, 청소년들의 지역감정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지역감정 해소방안에 대한 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문화적 해소방안으로 ①초·중·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역편견을 해소할 수 교육내용 수록, ②표준말 교육의 강화와 대중매체

의 표준말 사용권장, ③군대에서의 교육훈련 강화, ④국민운동 및 의식개혁운동 전개, ⑤지역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민간단체의 지역 간 교류 활성화, 학생단체간의 교류, 지역 간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각종 기관 학교 및 단체의 자매결연 사업 추진), ⑥지방 언론매체의 지역 간 교류확대와 건전한 언론문화 정착, 경제적 해소방안으로 ①지역 간 균형발전, ②지방산업의 육성 및 산업간, 업종간 균형성장,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의 실현 등이 제시된 바 있다.

3. 용어의 정의

지역감정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그 접근 방법 및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 왔다. 먼저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주로 Allport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편견(prejudice)이나 고정관념(stereotype)이라는 용어가 지역감정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Allport(1954)는 편견을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Ashmore와 Del Boca(1976)는 편견을 “사회적으로 정의된 집단에 대하여 그리고 그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갖는 부정적 태도”라고 규정하였다.

고정관념에 대해 Allport(1954)는 “어떤 범주에 연합된 과장된 신념”이라고 하였고, Brigham(1971)은 “집단 적대감의 인지적 요소로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믿어지는 성격이나 행동양식에서의 특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Ashmore와 Del Boca(1981)는 “어떤 인간 집단의 속성에 관한 신념의 집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심리학적 관점에 기초한 용어들은 집단 속에서 구성원들간에서 서로에 대해서 갖는 개인의 인지, 행동적 측면을 강조한 정의들이라 볼 수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조경근(1987)은 지역감정을 “지연에 기초하여

형성된 여러 지역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속성의 심리상태”라고 보았고, 김진국(1989)은 “특정 지역이나 여타 지역주민들의 지연에 기초하여 어떤 지역주민에 대해 사회관계 속에서 표출시키는 배타적 태도나 행동성향”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대해 김진국(1992)은 지역감정이라는 용어를 구성하는 단어나 그 사전적 의미에만 주목한다면 지역민들 간에 존재하는 집단 적대감의 감정적 요소인 편견만을 뜻한다고 하면서, 지역감정이라는 용어는 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지역감정이란 지역적 연고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집단 적대감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을 종합하여 지역감정은 개인적 차원의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문화적 반응인 동시에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객관적 차별성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집단갈등 현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감정에 대한 접근은 지난 30여년 간의 급속한 사회, 경제적 발전의 이면에 누적되어 온 지역 간 불균형적 발전과 분배체계 및 인사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소외된 지역의 불만과 각 지역주민의 감정적, 주관적 편견 및 소외의식의 상호결합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표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이론적 배경
2. 지역갈등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경향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이론적 배경

지역감정이란 지연(地緣)에 기초하여 형성된 여타 지역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속성의 심리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역갈등이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집단적 적대감으로서 그 구성요소는 고정관념, 편견, 차별 등을 들 수 있으며, 지역연고를 중심으로 한 집단적 적대감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갈등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는 한 지역주민과 다른 지역주민 간의 대립, 경쟁, 충돌상태, 지연에 기초한 지역 상호간에 여러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서로 양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심리적·형태적 대립 또는 경쟁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감정은 이성과 대칭이 되는 말이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말 뒤에 붙는 '감정'이 개인과 집단의 정치적 결정에 작용을 미칠 때는 반드시 비이성적인 결과가 나오게 마련이다. 지역감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 역사에서나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어 왔으며, 또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역감정은 세계 다른 지역의 지역감정과는 달리 같은 민족 내부의 문제이며, 지배체제를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가 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의 정도가 다르다 할 수 있다. 즉 이제 지역감정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오늘날의 지역감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1) 지역감정과 역사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중시하는 이들은 오늘날 현존하는 지역감정은 이미 과거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역감정이 그것을 촉발시키는 어떤 사건을 영향을 받아 현실 정치과정에서 표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오늘날 한국의 지역갈등 문제를 역사적 과거로 즉 고려시대 아니 통일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기원을 찾고 있다. 특히 지역감정 및 지역갈등의 원인을 역사적 배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신복룡 교수는 지역갈등의 존재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신복룡 교수는 호남 갈등의 문제를 현대사의 시각에서 조명하려 한다면 이는 피해의 실상을 설명하는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으며, 원인을 설명하는 문제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주의 빈곤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

이러한 경향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 남영신의 『지역패권주의의 한국』이다.²⁾ 저자는 「민족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한 고언」이라는 부제가 붙은 그 책에서 남한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지역문제를 단순히 지역감정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을 넘어 ‘지역패권주의’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는 “특정 지역 출신들이 그들 지역 주민들과 결탁하여 자기들에 의한 반도 지배를 영구화하려는 음모 내지 정책을 일컬어 한국판 지역패권주의”라고 정의한다.

남영신은 지역감정에 관심이 큰 사람들이 그것을 망국적이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삼국시대부터 90년대의 ‘경상도 정권’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사료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연구한 이 책은 높은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그의 저서는 지역갈등, 지역모순, 지역균열, 지역감정 등 다

1) 신복룡, 「지역격차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논평」,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성원사, 1992), pp. 45-50.

2) 남영신, 『지역패권주의의 한국』 (새문사, 1991).

양한 용어로 표현되는 지역문제를 경사도 출신의 군인·정치인·자본가·언론인·문화인이 결탁해서 전라도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경기와 충청·강원까지를 지배하는 권위주의 세력을 구축했다고 보는 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성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다.

이와는 달리 오늘날의 지역감정은 1960년대 이후 군사독재 정권의 등장과 함께 추진된 경제성장 우선 정책으로 심화되었다는 주장들이 있다. 즉 1960년대 이후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낳은 부정적인 모습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6공화국에 들어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이래 영호남간의 갈등이 매 선거마다 발생하는 단순한 선거열풍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양 지역민간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었던 지역감정이 단지 선거운동을 통해 촉발·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태연은 남영신 연구의 초점을 지역차별이 통일신라시대에 생겨났고, 즉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패망한 이후 구백제 지역인들은 신라인들에게 철저한 지역차별을 당했으며, 이러한 차별이 고려시대에도 여러 가지 음모와 권력투쟁 속에서 재현되어 조선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는 주장으로 정리하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다.³⁾ 그는 이러한 접근이 지역패권의 원인을 떠나면 역사에서 찾음으로써 이를 정당화시키고, 그 비판에 있어 규범성을 잃고 패배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영호남 대결을 역사적으로 고증하려는 이런 시도는 오늘날 영호남 대결 구조를 역사에 투사하여 상상력의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안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황태연은 한국에서 지역패권과 지역차별의 원인을 군사독재의 산물이라 주장한다.

심지어 최장집 교수는 오늘의 지역감정을 마치 신라 대 백제 운운하면서 먼 과거 속으로 소급될 수 있는 긴 역사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역감정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정치교육의 한 소산이라 볼 수 있다고까지 주장한다.⁴⁾ 그는 역사적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역감정은 정치

3) 황태연, 『지역패권의 나라』 (서울: 무당미디어, 1997), pp. 32-41.

적이며, 경제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이라면서, 지역감정의 형성을 유신체제 하의 호남지방에 대한 차별정책에서 직접적인 계기를 찾는다.

이상의 상반된 주장을 포괄하면서 현 단계의 지역(영호남) 갈등의 차별성을 지역갈등의 역사적 요인들과 현 단계의 자본축적의 조건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규정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⁵⁾ 영호남 갈등은 우리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연혁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각 역사 체제마다 갈등의 발생 토대와 형태 등이 차이가 날 뿐 그 본질적인 성격은 그것이 물적이든 이데올로기적이든 각 역사체제가 감지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현 단계의 지역갈등은 자본축적체제의 공간적 분화 즉 지역사회 구성체 간의 차이와 갈등으로 그 성격을 집약할 수 있다고 한다.

2) 지역감정의 원인

사회적 갈등은 사회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은폐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갈등요인을 분명히 밝혀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갈등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해 보면, 심리적인 차원에서 지역감정과 편견의 문제를 위주로 보는 입장과 구조적인 차원에서 지역격차와 갈등의 문제를 위주로 보는 입장이 여러 가지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자는 감정과 편견이 단순히 영호남간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

4) 최장집, 「지역감정의 지배 이데올로기적 기능」, 김종철·최장집 외, 『지역감정 연구』 (서울: 학민사, 1991), pp. 33.

5) 조명래, 「영호남 갈등의 사적 유물론적 고찰」,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엮음, 『지역불균형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4), pp. 58-60.

에 대한 여타 지역들이 갖는 문제라고 보는데 비해서 후자는 지역갈등을 주로 영호남간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전자는 편견의 역사적 뿌리가 비교적 오래된 것으로 보는 반면에 후자는 지역격차와 갈등을 정치권력이 영남권에 집중되어 시작한 1960년대 이후의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전자는 지역감정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 등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보는 대신에 후자는 지역감정 문제가 몇 가지의 올바른 정책만 강력하게 추진된다면 비교적 단기적으로 해소될 성격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전자가 지역감정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위주로 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반면에 후자는 지역갈등이라는 정치·사회적 현상을 위주로 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양쪽 모두 나름대로의 이론적 타당성과 경험적 자료의 뒷받침을 갖고 있다.

결국, 지역갈등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논의가 이루고 있는 이러한 시각적인 대립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지양될 수 있는 성격의 것 인지부터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감정 및 지역편견이라는 심리적 요인과 지역격차 및 지역갈등이라는 사회적 요인간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은 지역갈등이라는 현재적 차원의 문제해결은 물론이고 지역감정이라는 잠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⁶⁾

6) 전병제,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성원사, 1992), pp. 7-8.

<표 II-1> 지역갈등의 원인

	심리적 차원	구조적 차원
지역성	특정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문제	영호남간의 문제
역사성	오랜 역사적 뿌리를 둔 아주 오래 전에 발생한 현상으로 파악	영남권에 정치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발생한 현상으로 파악
관점	지역감정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중심으로 문제를 접근	지역갈등이라는 정치·사회적 현상을 위주로 문제를 접근
해소 방안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오랜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	몇 가지 올바른 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단기적 해소가 가능한 과제
주요 개념	지역감정·편견 심리적 현상	지역격차·갈등 장치·사회적 현상

(1) 지역감정과 사회화⁷⁾

지역감정의 해소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영·호남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배타의식을 갖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도록 만든 지역감정이 어떠한 통로를 거쳐 사회화되는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화란 개인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각자에게만 특유한 자아성, 혹은 퍼스낼리티(personality)를 형성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각 사회가 그

7) 박용남, 「오늘의 지역감정 실태」, 김종철·최장집 외, 『지역감정 연구』(서울: 학민사, 1991), pp. 53.

의 문화적 유산을 세대에서 세대로 면면히 전승해 가는 과정을 총칭한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화는 개인들 속에 다 집단의 문화적인 내용들을 심고 일구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회화의 주체, 즉 주관자를 삶의 주기에 따라 대충 분류하면 가족, 동년배집단, 학교, 직장, 특수집단(군대, 대기업체, 정당 등), 그리고 대중매체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 가족이나 이웃은 모든 정치사회화의 매체들 중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강력한 원초적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을 통해 지역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펴보면 노력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다.

(2) 정치·경제·사회적 조건⁸⁾

지역문제에 관한 본격적 연구로는, 김만흠의 「한국의 정치균열에 관한 연구」(서울대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가 있다. 저자는 지역균열의 사회경제적 구조, 지역균열의 정치과정과 행태를 현상과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조명래의 「지역차별의 정치경제학」(영국 서섹스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은 “최근 서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공간정치경제학이라는 비평적 지식체계”를 이론적 틀로 삼아 ‘두 남쪽 지방에 나타나는 지역차별의 역사적 근원과 전개’ ‘자본주의 국가의 형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급의 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정치경제학 또는 계급적 시각으로 지역차별에 접근하고 있다. 한편 “지역감정은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이라고 접근하는 연구로는 최장집의 “지역감정의 지배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있다. 저자는 6월 항쟁으로 위기에 몰린 집권 세력이 “사상 유례 없이 강력해진 반 군부독재 민주동맹을 약화”시킬 방법으로 ‘고전적인 분할지배전략’을 택했으며, 그 핵심이 지역감정이라고

8) 나간채, 「지역 간의 사회적 거리감」, 김종철·최장집 외, 『지역감정 연구』 (서울: 학민사, 1991), pp. 46-47.

보고 있다.

(3) 지역 간의 사회적 거리감⁹⁾

최근 한국사회에서 특정지역 출신에 대해 갖는 차별과 거부감 즉 특정 지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이와 같은 지역적 차별대우의 사례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유형화되어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정 지역집단에 대한 이와 같은 차별대우와 심화된 갈등적 관계는 지역 간 불균등발전, 사회적 불안정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인 것이며, 동시에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적 차별과 지역(민)간의 갈등적 해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행위자가 타 지역민에 대하여 갖는 감정상태를 확인해보는 것도 유용한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에 타 지역인에 대한 차별대우나 갈등적 행동의 잠재적 상태로부터 지역감정이라는 개념의 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심리적 감정상태는 상호작용의 과정에 있어서 차별행동이나 갈등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감정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사랑과 미움, 존경과 경멸, 우호감과 적대감 등 허다한 감정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기초로 한 집단 간의 사회관계의 성격을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의 하나로서 사회적 거리감(subjective social distance)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집단

9) 나간채, 「지역 간의 사회적 거리감」, 김종철·최장집 외, 『지역감정 연구』 (서울: 학민사, 1991), pp. 46-47.

간 상호관계의 잠재적 성격을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감을 포함하는 지역감정이라는 개념도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의미내용으로 일관되게 구분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지역집단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포함하는 지역감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극히 최근에 시작되었으며, 그 연구 결과는 역시 희소한 편이다. 이들 연구내용에는 지역(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호오(好惡),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을 포함하고 있다.

2. 지역감정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경향

지역감정이나 지역갈등의 역사적 배경이나 원인을 우리가 탐구하는 것은 결국 망국의 병이라 일컬어지는 지역감정과 지역갈등의 사회발전에 있어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그 해소방안은 역사적 배경과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이 역사적 배경과 원인을 달리하는 만큼이나 그 해소방안도 실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를 크게 분류하면 정치·행정적 접근, 경제 및 지역개발 측면에서의 접근 그리고 사회·심리적 접근 방안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정치·행정 측면의 해소방안¹⁰⁾

(1) 민주화의 실현

10) 최문성, 「정치·행정과 지역감정」, 김종철·최장집 외, 『지역감정 연구』 (서울: 학민사, 1991), pp. 301-308.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지역감정이 정치권에 의해서 형성·심화, 또는 촉발되었다면 그 해결의 실마리를 당연히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특히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그에 수반되는 폐쇄적인, 차별적인 행정의 구조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는 지역갈 등의 건전한 해소는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들을 고양하여 건전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인사의 공정성

정부인사, 군장성 등 국가 주요 엘리트 층원에 있어서의 출신지역별 분포는 집권자의 출신자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겠지만, 지난날처럼 집권자의 연고지에 대한 극심한 편중충원과 특정지역에 대한 상대적 배척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제의 정착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참여의 직접성과 책임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정착이 지역감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지역 간의 불균형발전도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거기서 비롯된 자원과 가치의 자의적 배분의 결과였다. 서울에 의한 지방의 내국식민지화(internal colonialization)의 결과인 지역불균형성의 문제는 정치주기(political business cycle)에 따른 중앙정부의 시혜적 은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중앙집권세력의 대리인격인 지역의 일부 세력과 엘리트들의 자기중심적 대향성으로는 더더욱 해결이 어렵다. 지역문제 발생의 근본원인이 중앙집권의 정치구도에 있다면,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각하여 적극적으로 그 대책을 모색하여야 하고, 그 결과 지역문제는 민

주화의 수단이자 목표가 된다. 즉 지방주민은 '관치의 객체'가 아니고 '민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4) 행정제도의 개편

지역감정은 우리나라의 동서 분리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전통사회에서 형성된 행정구역 편제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 지리에 의존했던 전통사회가 아닌 현대사회에서, 자연 지리적 분리구조를 교통망의 조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 될 수 있으며, 국가통합의 촉진 을 위한 편제의 재조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5) 선거제도의 개선

현재의 선거법은 지역감정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이 많으므로 여야 정당의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을 집권기반으로 삼겠다는 정치지도자와 정치인들의 의식을 단숨에 개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선거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역적으로 협소하고 깨다가 국회의원인 그 지역주민들의 연줄로 간주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 원선거는 지역감정의 조장으로 판가름날 수밖에 없고, 소선거구제는 편협한 지역의식을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경제 및 지역개발 측면의 해소방안¹¹⁾

11) 최원규, 「경제·개발의 격차와 지역감정」, 김종철·최장집 외, 『지역감정 연구』 (서울: 학민사, 1991), pp. 326-331.

경제, 지역개발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지역 간 격차 또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소외의식은 지역갈등 내지는 지역감정의 ‘근거’ 또는 ‘존재이유’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감정적이고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지역감정 해소노력을 성공할 수 없도록 하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해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소외의식’ 내지 ‘피해의식’으로서의 지역감정의 근거에는 지난 30여 년 간의 경제성장의 결실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인식이 일정 부분 현실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발, 지역개발에 있어서의 차등은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간의 고용기회, 소득수준, 교육수준 및 복지수준 등 총체적인 생활기회상의 차이를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차이에서 지역의식이 싹터 결국 지난 양대 선거에서 본 것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지역감정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경제, 지역개발 측면에서 지역감정의 실태와 형성원인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 간의 경제적인 수준차이나 지역개발의 앞서고 뒤짐이 곧바로 지역감정을 유발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감정이 심화된 시점은 5.16후 군사정권의 등장과 야심적으로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의 전개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던 지역 간의 갈등이나 감정이 심화된 이면에는 일부 지역에서 경제개발계획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이 주민 개개인들의 집합적 경험이나 일부 공식적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은 1960년대 중반으로 볼 수 있다. 지역감정의 근위한 방안은 실질적으로 지역격차를 완화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감정’의 양금을 가라앉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지향점은 무엇인가? 경제·지역개발 측면과 관련하여 지역

감정의 해소를 위한 기본 지향은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과 '지역 간 형평'(territorial justice) 두 가지 가치로 집약된다 하겠다.

결국, 이러한 두 가지 기본 가치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및 주민의 욕구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사회경제적 투자와 지원을 함으로써 점차 지역격차의 갭을 줄여나가 지역 간 형평을 추구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1) 지역 간 균형개발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감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균형성장전략으로 인하여 경제력의 특정 지역 편중현상, 지역 간 경제개발 및 발전의 차별성, 그리고 그에 따른 특정지역주민의 피해의식과 소외의식의 강화현상 등 실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의 해소방안의 모색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산업간·업종간 균형성장

우리나라 사업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대략 발전지역=2·3차 산업 지역, 낙후지역=1차 산업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좀더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서울과 부산을 잇는 축선 상은 대략 발전지역이며 2·3차 산업 지연인데 비해, 여타 지역은 낙후 지역, 1차 산업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격차의 해소를 위한 한가지 방안은 농림수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산업구조가 다른 각 지역 간에 소득과 생활수준의 차이를 좁힌다면 그로 인해 파생될 수도 있는 지역갈 등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위에서 설명한 지역개발방안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도시·농촌간 균형개발

위에서 제안한 1차 산업 육성방안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개발을 통해 지역감정의 해소를 도모할 수 있다. 도시에 집중되어온 개발투자를 농촌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는 것은 대도시 인구집중을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정책이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의 추진은 결과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성장전략으로 일관하여 이농현상 및 농촌경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지역 간 균형개발 못지 않게 도시-농촌간의 균형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농촌경제 활성화정책(예를 들면, 농가부채의 해결, 농산물가격의 적정선 보장,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뿐만 아니라 도시-농촌에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한다.

(4) 사회보장의 확충

지역갈등, 지역감정 등의 형성·대두 배경에는 현재의 삶의 제 조건에 대한 불만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의 조건을 형성한 기본적인 구조로서 사회 전체의 분배체제상의 모순을 들추어내기 이전에 문제를 지역격차와 같은 외적인, 그리고 부차적인 측면에 돌리기 쉬운 것이다.

국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일체감과 연대성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직면한 주요 현안이라고 한다면 '사후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보장의 확충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본다. 사회보장의 여러 기능 중 지역감정의 해소와 깊은 관련이 있는 기능은 그것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기능일 것이다. 사회보장은 국민들간에 공동체의식과 참여정신을 고취시킨다. 사회보장은 소외의식을 덜어주고, 소수집단·취약계층을 전체사회에 통합시키며, 지역문화를 민족문화에 결

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사회보장은 경제체계에 의해 설정된 소득과 자원에 대한 통제권한의 불균등한 분배를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3) 지역갈등의 사회·심리적 해소¹²⁾

앞에서 한국사회의 지역감정의 실상은 호남인에 대한 비호남인들의 편견과, 영남과 호남의 두 정치세력집단간의 경쟁적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의 두 성분으로 파악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역감정의 해소 방안은 호남인에 대한 편견의 해소와 영·호남간의 집단적 갈등감정 해소의 두 방향에 집중되어야 한다. 호남인에 대한 편견의 해소에는 사회·심리적 방안이 적절할 것이나 영·호남간의 갈등에는 정치·경제적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교육내용 개선과 지역 간의 학생교류

편견은 일단 형성되면 수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심리학적 상식이다. 그 주된 이유는 가설·확인적 검증전략 때문이다. 즉 일단 어떤 고정관념을 받아들리게 되면 그 고정관념과 합치되는 정보만을 추구하고 그렇지 못한 정보는 무시해 버리는 사고의 버릇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 수정의 어려움 때문에 편견은 형성되기 이전이나 형성 초기에 손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성인이 이전의 학교교육에서 편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편견에 대한 교육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학교장면에서의 지역감정 해소의 노력도

12) 민정환, 「사회·심리적으로 본 지역감정」, 김종철·최장집 외, 『지역감정 연구』 (서울: 학민사, 1991), pp. 183-188.

다음 세 가지 방안들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적 편견을 교과서에서 다루는 방안이다. 현재의 교과과정(초·중·고등학교)에서는 편견을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들에 의해서 주입되는 편견을 아무 방비 없이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편견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할 경우 어떤 내용을 어느 학년에서 다룰 것인지가 문제이다. 인지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에게 우리 사회의 지역 편견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은 오히려 학교에서 지역편견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낳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교육전문가들의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한가지 안은 편견에 대한 교육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초등학교에서는 상이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내용을 소개하고, 중학교에서는 일반적인 편견의 허구성과 해독을 주지시키는 내용을 가르치고, 고등학교에 이르러서 비로소 우리 사회의 각종 편견(지역, 성, 계층 등)을 논의하는 내용을 수록하는 방식이다.

둘째, 상이한 지역 학생들간에 접촉을 증대하는 방안이다. 갈등상태에 있는 집단 구성원들간에 접촉을 증대시킴으로써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접촉 가설’은 사회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편견 해소 방안이다. ‘접촉 가설’은 친숙도가 증감에 따라 호감도가 상승한다는 연구결과와, 타 집단 구성원과의 접촉이 집단고정관념의 허구성을 깨우쳐 주리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접촉가설을 현실정책에 적용한 대표적 사례는 미국에서 백인 아동들과 유색인 아동들을 강제로 동일학교에 통학시킨 인종 차별대우 폐지(desegregation)정책이다. 그러나 집단 간 접촉이 생활적 차를 드러내거나, 경쟁관계에서 접촉이거나, 단기간의 피상적인 접촉일 경우에는 오히려 갈등과 편견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방학을 이용하여 캠프 프로그램을 만들어 상이한 지역출신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공동목표를 향하여 협력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안일 것이다.

셋째, 표준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단일 민족인 우리나라에서 출신지역을 드러내는 유일한 단서는 언어 즉 각 지방의 특유의 방언이다. 호남과 영남의 경우 지방색의 두드러진 것도 다른 지역보다 방언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이다. 방언은 동일한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친화감을 높이지만 다른 지역사람들에게는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방언은 지역문화의 측면도 있으므로 방언사용의 무조건 억압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적어도 공식적인 모임이나 대중매체의 경우에는 표준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말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표준말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꽤 소홀히 되고 있는 느낌이다. 표준말 교육은 국민의식을 높이고 우리 국어를 제대로 가르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교사가 정확하게 표준말을 구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표준말을 쓰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한 언론문화 정착

위에서 설명한 학교교육을 통한 지역감정의 해소가 지역감정이 형성되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이제부터 설명하려는 방안들은 사후적인 지역감정 치유노력으로 볼 수 있다. 주로 대중매체를 통하여 펼쳐진 지역감정 해소의 노력은 건설한 언론문화의 정착이라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감정은 일부 무책임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일쑤이다. 지역감정과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문제의 핵심에 대한 냉철한 파악으로부터 시작된다.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의 실상에 대하여 옳은 시각을 심어주고 해독을 이해시키는 일은 사회과학자의 도움을 받아 언론이 담당하여야 할 일이다.

특히, 특정 지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거나 지역집단간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피하려는 노력을 대중매체에서 기울여야 한다. 흔히

방송드라마 등에서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성격과 역할을 극중의 해당 지역인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빚곤 하였다. 이러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는 규제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언론에 대한 정부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언론기관의 자율적 심의에 맡길 수밖에 없다.

(3) 지역문화와 활성화

우리 사회의 지역편견은 각 지역(특히 영남과 호남)이 정치적 경쟁집단으로 서로를 인식해온 데 큰 원인이 있다. 그러나 지역감정이 지역 간 교류나 이동의 결여에 한 원인이 있다면 그 부수 결과로 각 지역이 독특한 지역문화를 형성해왔으리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지역편견의 큰 대상인 호남의 경우 예술적 전통이 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함은 모두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각 지역집단을 문화집단을 문화집단으로 파악하고, 독특한 지역문화를 찾아내어 발전시키고 홍보하는 노력을 펼친다면 각 지역인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타 지역에 대한 존경심을 동시에 지니게 될 것이다.

지역감정의 해소는 흔히 지역성의 말살이나 은폐와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의 강조라는 부정적 방향으로 오도되기 쉬운데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의미에서의 지역성의 제고가 문화발전의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역문화의 활성화는 중앙과 각 지역의 대중매체와 문화단체들이 모두 노력하여야 될 일이다. 물론 정부차원(문예진흥원 등)에서 지방문화 활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4) 사회운동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

지역편견의 가장 큰 해독은 사회적 차별이므로 지역편견에 대한 대처

는 무엇보다도 차별의 관행을 추방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물론 사회화의 시기에 교육을 통하여 편견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성인기에라도 상호접촉이나 이해의 과정을 통해서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이런 방안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역 편견의 해독이 이러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의식 변화에만 의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차별금지의 사회운동을 전개하거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조사도구
3. 조사방법
4. 자료처리방법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를 위한 대상은 전국의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선 표집한 중 · 고등학생 1,284명이다. 이들 1,284명의 배경 특성을 살펴보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대상자의 특성

특 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628	48.9
	여자	658	51.1
	계	1,284	100.0
학교	중학교	696	54.2
	고등학교	588	45.8
	계	1,284	100.0
아버지의 학력	초졸	41	3.2
	중졸	152	11.8
	고졸	645	50.2
	대졸	356	27.7
	대학원졸	80	6.2
	기타	10	0.8
	계	1,284	100.0
어머니의 학력	초졸	65	5.1
	중졸	240	18.7
	고졸	768	59.8
	대졸	181	14.1
	대학원졸	13	1.0
	기타	17	1.3
	계	1,284	100.0

<표 III-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표집된 1,284명 중 남녀별로 보면 남자 628명(48.9%), 여자는 658명(51.1%)이며, 연령별로는 중학생 696(54.2%), 고등학생 588(45.8%)이다. 이들 연구대상자의 아버지 및 어머니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 출신이 각각 50.2%와 59.8%로 가장 많았고 대졸 출신은 각각 27.7%와 14.1%를 차지하였으며 중졸 출신도 18.7%이었다.

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지역감정과 관련된 여러 문헌이나 자료를 분석·검토하여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연구대상자의 배경 특성을 묻는 일반적 질문, 지역갈등과 관련하여 학교나 가정에서의 경험 및 친구와의 경험을 묻는 질문, 우리나라의 지역갈등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의견 등을 묻는 질문, 그리고 다른 지역사람들의 이미지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의견 등을 묻는 질문을 포함하여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2000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 동안 표집 대상에 포함된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교장의 협조 하에 우편으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에 참여한 학교의 설문 담당교사에게 설문지와 함께 설문 취지 및 실시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요청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동봉한 반송용 봉투를 이용해 연구진에게 회송토록 하였다.

4. 자료처리방법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호화하였다. 그리고 통계분석 방법은 윈도우용 SPSS을 이용하여 빈도와 퍼센트, χ^2 검증, t검증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일반적 생각·느낌
2. 지역갈등에 대한 청소년 의식실태 및 특징
3. 지역갈등의 원인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4. 지역갈등의 사회화
5. 지역갈등의 해소방안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IV. 결과 및 해석

1. 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일반적 생각 · 느낌

1) 타 지역에 대한 일반적 생각이나 느낌

성인이 되었을 때 가장 살고 싶은 지역에 대해 청소년들이 제1순위로 꼽은 지역에 대한 결과는 <표 IV-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서울(62.5%)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경기(11.9%)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청소년들이 대도시 지역을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1> 성인이 되었을 때 살고 싶은 지역(1순위)

지 역	빈 도	퍼센트(%)
서 울	746	62.5
경 기	143	11.9
강 원	45	3.8
충 북	32	2.7
충 남	25	2.1
전 북	19	1.6
전 남	26	2.2
경 북	53	4.4
경 남	22	1.8
제 주	83	7.0
계	1,194	100.0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에 대해 청소년들이 제1순위로 꼽은 지역에 대한 결과는 <표 IV-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서울(41.1%)을 꼽았으며 그 다음이 제주(18.8%)와 경기(10.1%) 지역을 꼽았다. 이는 경제 및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과 환경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2> 전국에서 살기 좋은 지역(1순위)

지 역	빈 도	퍼센트(%)
서 울	521	41.1
경 기	127	10.1
강 원	100	8.0
충 북	73	2.7
충 남	40	5.8
전 북	42	3.3
전 남	42	3.3
경 북	51	4.1
경 남	36	2.8
제 주	237	18.8
계	1,269	100.0

타 시도로 이주 시 적응하기에 쉽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 청소년들이 제1순위로 꼽은 지역에 대한 결과는 <표 IV-3>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타 시도로 이주 시 적응하기에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서울(30.2%)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경기(13.5%)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많은 청소년들이 대도시 지역이

살고 싶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적응하기에도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IV-3> 이주 시 적응하기 쉬운 지역(1순위)

지 역	빈 도	퍼센트(%)
서 울	374	30.2
경 기	167	13.5
강 원	94	7.6
충 북	96	7.8
충 남	78	6.3
전 북	59	4.8
전 남	70	5.7
경 북	110	8.8
경 남	78	6.3
제 주	112	9.0
계	1,238	100.0

2) 태어난 고향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대한 청소년의 느낌에 대한 결과는 <표 IV-4>와 <표 IV-5>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4>를 살펴보면 비록 그저 그렇다가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청소년들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대해 비교적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9%가 자랑스럽다고 여기고 있었고, 17.8%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를 남녀 및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들(약 45%)보다 남자 청소년들(약 52%)이 자신의 고향에 대해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연령이 많은 고등학생들(약 44%)보다 연령이 적은 중학생들(53%)이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표 IV-4> 태어난 고향에 대한 느낌

구 분		매우 자랑스럽다	자랑 스럽다	그저 그렇다	부끄럽다	매우 부끄럽다
성별	남 자	135(21.5)	193(30.7)	291(46.3)	6(1.0)	3(0.5)
	여 자	94(14.3)	204(31.1)	347(52.9)	8(1.2)	3(0.5)
연령별	중학생	140(20.1)	226(32.5)	319(45.8)	6(0.9)	5(0.7)
	고등학생	89(15.1)	171(29.1)	319(54.3)	8(1.4)	1(0.2)
전 체		229(17.8)	397(30.9)	638(49.7)	14(1.1)	6(0.5)

이러한 결과는 5품등 척도를 점수화하여 평균차이를 t검정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표 IV-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자의 평균이 여자의 평균보다, 중학생의 평균이 고등학생의 평균보다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들과 연령이 적은 중학생들이 자신의 고향에 대해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IV-5> 태어난 고향에 대한 느낌의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성별	남 자	628	3.72	0.83	3.19**
	여 자	656	3.58	0.76	
연령별	중학생	696	3.70	0.82	2.88**
	고등학생	588	3.58	0.77	

**p<.01

3)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일반적 느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느낌에 대한 결과는 <표 IV-6>과 <표 IV-7>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6>를 살펴보면 비록 그저 그렇다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청소년들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교적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9%가 자랑스럽다고 여기고 있었고, 13.6%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를 남녀 및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들(약 33%)보다 남자 청소년들(약 46%)이 자신의 고향에 대해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연령이 많은 고등학생들(약 36%)보다 연령이 적은 중학생들(43%)이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표 IV-6> 현재 살고있는 지역에 대한 느낌

구 분		매우 자랑스럽다	자랑 스럽다	그저 그렇다	부끄럽다	매우 부끄럽다
성별	남 자	111(17.7)	178(28.3)	314(50.0)	18(2.9)	7(1.1)
	여 자	64(9.8)	154(23.5)	401(61.1)	28(4.3)	9(1.4)
연령별	중학생	110(15.8)	188(27.0)	365(52.4)	21(3.0)	12(1.7)
	고등학생	65(11.1)	144(24.5)	350(59.5)	25(4.3)	4(0.7)
전 체		229(13.6)	397(25.9)	638(55.7)	14(3.6)	6(1.2)

이러한 결과는 5품등 척도를 점수화하여 평균차이를 t검정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표 IV-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자의 평균이 여자의 평균보다, 중학생의 평균이 고등학생의 평균보다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들과 연령이 적은 중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IV-7> 현재 살고있는 지역에 대한 느낌의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성별	남 자	628	3.59	0.85	4.99***
	여 자	656	3.36	0.77	
연령별	중학생	696	3.52	0.85	2.47*
	고등학생	588	3.41	0.77	

* $p<.05$, *** $p<.001$

4) 자신 또는 부모님의 출신지역(출신도)에 대한 선호도

청소년들이 자신 혹은 부모님의 출신지역(출신도)를 밝히기를 싫어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IV-8>과 <표 IV-9>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8>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 혹은 부모님의 출신지역(출신도)를 밝히기를 싫어한 적이 없었다. 80%이상의 청소년들이 밝히기를 싫어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아직 기성 혹은 성인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출신지역이나 출신도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자신의 고향이나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교적 자랑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표 IV-8> 자신 또는 부모님의 출신지역(출신도)을 밝히기를 싫어 한 정도

구 분		매우 자주 있었음	자주 있었음	그저 그렇다	별로 없었음	전혀 없었음
성별	남 자	4(0.6)	9(1.4)	22(3.5)	69(11.0)	524(83.4)
	여 자	3(0.5)	7(1.1)	25(3.8)	91(13.9)	530(80.8)
연령별	중학생	4(0.6)	10(1.4)	22(3.2)	83(11.9)	577(82.9)
	고등 학생	3(0.5)	6(1.0)	25(4.3)	77(13.1)	477(81.1)
전 체		7(0.5)	16(1.2)	47(3.7)	160(12.5)	1,054(82.1)

이러한 감정이나 느낌이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를 있는 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IV-9>에 나타나 있다. <표 IV-9>에 따르면 이러한 청소년들의 느낌이나 감정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품등 척도에 의한 점수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들은 자신들이나 부모님들의 출신지역이나 출신도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9> 자신 또는 부모님의 출신지역(출신도)을 밝히기를 싫어 한 정도의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성별	남 자	628	1.25	0.65	-.47
	여 자	656	1.27	0.62	
연령별	중학생	696	1.25	0.64	-.52
	고등학생	588	1.27	0.64	

5) 타 지역사람에 대한 친근도

타 지역사람에 대한 청소년들의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알아 본 결과는 <표 IV-10>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지역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28.3%의 청소년들이 타 지역사람에 대해 느끼는 친근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타 지역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지역사람이 서울과 경상북도 지역사람이었다. 10.1%와 10.2%의 청소년들이 각각 서울 지역사람과 경상북도 지역사람에 대해 큰 친근감을 보이고 있었다. 서울에 대해 높은 비율은 아마도 청소년들이 대도시의 지역사람에 대해 친근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표 IV-10> 가장 큰 친근감을 느끼는 지역사람

지 역	빈 도	퍼센트(%)
서 울	130	10.1
경 기	97	7.6
강 원	108	8.4
충 북	97	7.6
충 남	73	5.7
전 북	55	4.3
전 남	53	4.1
경 북	131	10.2
경 남	67	5.2
제 주	109	8.5
지역별 차이 없음	364	28.3
계	1,284	100.0

2. 지역갈등에 대한 청소년 의식실태 및 특징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지역갈등이 존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존재하고 있다면 그 정도가 얼마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의 정도가 얼마인지 등 지역갈등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실태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향이 남녀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지역갈등의 존재여부 및 그 정도

현재 우리나라에 지역감정이 존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과는

<표 IV-11>과 <표 IV-12>에 나타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역감정이 존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전체 1,284명의 청소년들 중 85.1%가 현재 우리나라에 지역감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 중 과반수(약 76%) 이상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IV-11> 우리나라에 지역갈등이 존재하고 있는지의 여부

구 분			있다면 그 정도					
			매단히 심각	심각	그저 그렇다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전 체	예	1,093 (85.1)	158 (14.5)	669 (61.2)	230 (21.0)	29 (2.7)	7 (0.6)	
	아니오	191 (14.9)						
성 별	남	예	514 (81.8)	82 (16.0)	320 (62.3)	92 (17.9)	17 (3.3)	3 (0.6)
		아니오	114 (18.2)					
	여	예	579 (88.3)	76 (13.1)	349 (60.3)	138 (23.8)	12 (2.1)	4 (0.7)
		아니오	77 (11.7)					
연 령 별	중 학 생	예	531 (76.3)	64 (12.1)	304 (57.3)	143 (26.9)	14 (2.6)	6 (1.1)
		아니오	165 (23.7)					
	고 등 학 생	예	562 (95.6)	94 (16.7)	365 (64.9)	87 (15.5)	15 (2.7)	1 (0.2)
		아니오	26 (4.4)					

남녀별로 구분하였을 때 남학생들 중 81.8%, 여학생들 중 88.3%가 현재 우리나라에 지역감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남(약 78%) 여(약 73%) 모두 그 정도가 심각 또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구분하였을 때 중학생들 중 76.3%, 고등학생들 중 95.6%가 현재 우리나라에 지역감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심각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중학생들의 경우 69.4%, 고등학생들의 경우 81.6%가 심각 또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5품 등 척도에 의한 점수의 평균차이에 대한 t검증의 결과는 <표 IV-12>에 나타나 있는데 연령별 차이가 유의하여 고등학생들(M=3.95)이 중학생들(M=3.76)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지역갈등의 정도에 대한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성 별	남 자	514	3.90	0.72	1.54
	여 자	579	3.85	0.70	
연령별	중학생	531	3.76	0.74	-4.45***
	고등학생	562	3.95	0.67	

***p<.001

2) 어느 지역출신이 집권하느냐가 출신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어느 지역출신이 집권하느냐가 출신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IV-1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학생들 중 72%가 약간 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남녀별로 구분하였을 때 남학생들

중 74.1%, 여학생들 중 70.1%가 약간 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연령별로 구분하였을 때 중학생들 중 59.8%, 고등학생들 중 86.6%가 약간 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표 IV-13> 어느 지역출신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출신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구 분		매우 큰 영향을 미침	약간 영향을 미침	그저 그렇다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성 별	남자	207(33.0)	258(41.1)	135(21.5)	28(4.5)	0(0.0)
	여자	164(25.0)	296(45.1)	169(25.8)	27(4.1)	0(0.0)
연령 별	중학생	123(17.7)	293(42.1)	241(34.6)	39(5.6)	0(0.0)
	고등학생	248(42.2)	261(44.4)	63(10.7)	16(2.7)	0(0.0)
전 체		371(28.9)	554(43.1)	304(23.7)	55(4.3)	0(0.0)

이는 5품등 척도에 의한 점수의 평균차이에서 남녀별 및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었다.

<표 IV-14> 어느 지역출신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출신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성 별	남 자	628	4.03	0.85	2.48*
	여 자	656	3.91	0.82	
연령별	중학생	696	3.72	0.82	-12.33***
	고등학생	588	4.26	0.76	

* $p < .05$, *** $p < .001$

3) 타도 · 타지역 출신사람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요인

타도 · 타지역 출신사람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결과는 <표 IV-15>에서부터 <표 IV-24>에까지 제시되어 있다.

(1) 지역출신 사람과의 접촉

<표 IV-15>는 지역출신 사람과의 접촉 요인에 대한 결과인데, 전체 학생들 중 36.6%가 약간 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5품등 척도에 의한 점수의 평균차이에서 남녀별 및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표 IV-16 참조).

<표 IV-15> 지역출신 사람과의 접촉

구 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	약간 영향을 미쳤음	그저 그렇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성 별	남 자	63(10.0)	164(26.1)	251(40.0)	80(12.7)	70(11.1)
	여 자	65(9.9)	177(27.0)	260(39.6)	90(13.7)	64(9.8)
연 령 별	중학생	55(7.9)	175(25.1)	309(44.4)	86(12.4)	71(10.2)
	고등학생	73(12.4)	166(28.2)	202(34.4)	84(14.3)	63(10.7)
전 체		128(10.0)	341(26.6)	511(39.8)	170(13.2)	134(10.4)

<표 IV-16> 지역출신 사람과의 접촉에 대한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성별	남 자	628	3.11	1.11	- .40
	여 자	656	3.14	1.08	
연령별	중학생	696	3.08	1.05	-1.48
	고등학생	588	3.17	1.15	

(2) TV, 라디오, 신문

<표 IV-17>은 TV, 라디오, 신문 요인에 대한 결과인데, 전체 학생들 중 42.4%가 약간 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5품 등 척도에 의한 점수의 평균차이에서 남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있었다(표 IV-18 참조).

<표 IV-17> TV, 라디오, 신문

구 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	약간 영향을 미쳤음	그저 그렇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성 별	남자	88(14.0)	162(25.8)	243(38.7)	77(12.3)	58(9.2)
	여자	97(14.8)	198(30.2)	241(36.7)	70(10.7)	50(7.6)
연 령 별	중학생	80(11.5)	178(25.6)	295(42.4)	88(12.6)	55(7.9)
	고등학생	105(17.9)	182(31.0)	189(32.1)	59(10.0)	53(9.0)
전 체		185(14.4)	360(28.0)	484(37.7)	147(11.4)	108(8.4)

연령 차이에서는 중학생들에게보다 고등학생들에게 TV, 라디오, 신문 요인이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갈등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이나 태도에 미치는 요인 중 대중매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며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8> TV, 라디오, 신문에 대한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성별	남 자	628	3.23	1.12	-1.74
	여 자	656	3.34	1.09	
연령별	중학생	696	3.20	1.06	-2.97**
	고등학생	588	3.39	1.16	

**p<.01

(3) 부모 · 형제

<표 IV-19>는 부모 · 형제 요인에 대한 결과인데, 전체 학생들 중 23.2%가 약간 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IV-19> 부모 · 형제

구 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	약간 영향을 미쳤음	그저 그렇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성 별	남 자	49(7.8)	102(16.2)	264(42.0)	108(17.2)	105(16.7)
	여 자	30(4.6)	116(17.7)	279(42.5)	118(18.0)	113(17.2)
연 령 별	중학생	45(6.5)	91(13.1)	329(47.3)	104(14.9)	127(18.2)
	고등학생	34(5.8)	127(21.6)	214(36.4)	122(20.7)	91(15.5)
전 체		79(6.2)	218(17.0)	543(42.3)	226(17.6)	218(17.0)

이는 5품등 척도에 의한 점수의 평균차이에서 남녀별로도 그리고 연령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표 IV-20 참조).

<표 IV-20> 부모·형제에 대한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성 별	남 자	628	2.81	1.13	1.10
	여 자	656	2.74	1.08	
연 령 별	중학생	696	2.75	1.10	-1.11
	고등학생	588	2.81	1.11	

(4) 친구

<표 IV-21>은 친구 요인에 대한 결과인데, 전체 학생들 중 21.1%가 약간 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IV-21> 친구

구 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	약간 영향을 미쳤음	그저 그렇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성별	남 자	37(5.9)	76(12.1)	268(42.7)	116(18.5)	131(20.9)
	여 자	38(5.8)	120(18.3)	257(39.2)	123(18.8)	118(18.0)
연령 별	중학생	46(6.6)	96(13.8)	307(44.1)	112(16.1)	135(19.4)
	고등학생	29(4.9)	100(17.0)	218(37.1)	127(21.6)	114(19.4)
전 체		75(5.8)	196(15.3)	525(40.9)	239(18.6)	249(19.4)

이는 5품등 척도에 의한 점수의 평균차이에서 남녀별 및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표 IV-22 참조).

<표 IV-22> 친구에 대한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 례 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성별	남 자	628	2.64	1.12	-1.83
	여 자	656	2.75	1.12	
연령별	중학생	696	2.72	1.12	.90
	고등학생	588	2.66	1.12	

(5) 학교 선생님

<표 IV-23>은 학교 선생님 요인에 대한 결과인데, 전체 학생들 중 20.8%가 약간 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IV-23> 학교 선생님

구 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	약간 영향을 미쳤음	그저 그렇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성 별	남 자	40(6.4)	87(13.9)	291(46.3)	105(16.7)	105(16.7)
	여 자	24(3.7)	116(17.7)	301(45.9)	112(17.1)	103(15.7)
연 령 별	중학생	33(4.7)	98(14.1)	345(49.6)	109(15.7)	111(15.9)
	고등학생	31(5.3)	105(17.9)	247(42.0)	108(18.4)	97(16.5)
전 체		64(5.0)	203(15.8)	592(46.1)	217(16.9)	208(16.2)

이는 5품등 척도에 의한 점수의 평균차이에서 남녀별 및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표 IV-24 참조).

<표 IV-24> 학교 선생님에 대한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성별	남 자	628	2.76	1.08	-.02
	여 자	656	2.77	1.03	
연령별	중학생	696	2.76	1.03	-.17
	고등학생	588	2.77	1.09	

전체적으로 볼 때, 타도·타지역 출신사람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서는 전체 학생들 중 지역출신 사람과의 접촉 요인에 대해 36.6%, TV·라디오·신문 요인에 대해 42.4%, 부모·형제 요인에 대해 23.2%, 친구 요인에 대해 21.1%, 학교선생님 요인에 대해 20.8%가 약간 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대중매체가 타도·타지역 출신사람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라디오·신문에 대해서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고 있었다.

3. 지역갈등의 원인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지역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느낌이나 태도가 남녀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지역주민간의 편견

<표 IV-25>는 지역주민간의 편견 요인에 대한 결과인데, 전체 학생들 중 54.4%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남녀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약 56%, 여자의 경우 약 53%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중학생의 경우 약 42%, 고등학생의 경우 69%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IV-25> 지역주민간의 편견

구 분		매우 크게 일으킴	크게 일으킴	그저 그렇다	적게 일으킴	매우 적게 일으킴
성 별	남 자	138(22.0)	216(34.4)	210(33.4)	46(7.3)	18(2.9)
	여 자	111(16.9)	234(35.7)	236(36.0)	47(7.2)	28(4.3)
연 령 별	중학생	101(14.5)	192(27.6)	298(42.8)	65(9.3)	40(5.7)
	고등학생	148(25.2)	258(43.9)	148(25.2)	28(4.8)	6(1.0)
전 체		249(19.4)	450(35.0)	446(34.7)	93(7.2)	46(3.6)

이는 5품등 척도에 의한 점수의 평균차이에서 남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IV-26 참조). 즉, 남자 청소년들과 고등학생들이 여자청소년들과 중학생들보다 지역주민간의 편견이 지역갈등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표 IV-26> 지역주민간의 편견에 대한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성 별	남 자	628	3.65	0.99	2.07*
	여 자	656	3.54	0.99	
연 령 별	중학생	696	3.36	1.03	-9.72***
	고등학생	588	3.87	0.88	

*p<.05, ***p<.001

2) 정부의 경제발전정책

<표 IV-27>은 정부의 경제발전정책 요인에 대한 결과인데, 전체 학생들 중 62.5%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남녀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약 62%, 여자의 경우 약 63%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중학생의 경우 약 50%, 고등학생의 경우 77%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5품등 척도에 의한 점수의 평균차이에서 남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있었다(표 IV-28 참조). 즉,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이 지역갈등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표 IV-27> 정부의 경제발전정책

구 분		매우 크게 일으킴	크게 일으킴	그저 그렇다	적게 일으킴	매우 적게 일으킴
성 별	남 자	171(27.2)	220(35.0)	196(31.2)	31(4.9)	10(1.6)
	여 자	154(23.5)	258(39.3)	197(30.0)	28(4.3)	19(2.9)
연 령 별	중학생	134(19.3)	214(30.7)	280(40.2)	43(6.2)	25(3.6)
	고등학생	191(32.5)	264(44.9)	113(19.2)	16(2.7)	4(0.7)
전 체		325(25.3)	478(37.2)	393(30.6)	59(4.6)	29(2.3)

<표 IV-28>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에 대한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성 별	남 자	628	3.81	0.94	.97
	여 자	656	3.76	0.95	
연 령 별	중학생	696	3.56	0.99	-9.86***
	고등학생	588	4.06	0.83	

***p<.001

3) 정부의 인사행정

<표 IV-29>는 정부의 인사행정 요인에 대한 결과인데, 전체 학생들 중 57.9%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남녀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약 53%, 여자의 경우 약 56%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중학생의 경우 약 47%, 고등학생의 경우 71%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IV-29> 정부의 인사행정

구 분		매우 크게 일으킴	크게 일으킴	그저 그렇다	적게 일으킴	매우 적게 일으킴
성 별	남 자	185(22.5)	193(30.7)	204(32.5)	36(5.7)	10(1.6)
	여 자	136(20.7)	229(34.9)	239(36.4)	36(5.5)	16(2.4)
연 령 별	중학생	135(19.4)	193(27.7)	298(42.8)	49(7.0)	21(3.0)
	고등학생	186(31.6)	229(38.9)	145(24.7)	23(3.9)	5(0.9)
전 체		321(25.0)	422(32.9)	443(34.5)	72(5.6)	26(2.0)

이는 5품등 척도에 의한 점수의 평균차이에서 남녀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있었다(표 IV-30 참조). 즉, 남자 청소년들과 고등학생들이 여자청소년들과 중학생들보다 정부의 인사행정이 지역갈등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표 IV-30> 정부의 인사행정에 대한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성 별	남 자	628	3.81	0.98	2.74**
	여 자	656	3.66	0.95	
연 령 별	중학생	696	3.53	0.98	-8.25***
	고등학생	588	3.97	0.89	

p<.01, *p<.001

4) 정치인의 선거운동

<표 IV-31>은 정치인의 선거운동 요인에 대한 결과인데, 전체 학생들이 중 74.2%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남녀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약 75%, 여자의 경우 약 73%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중학생의 경우 약 65%, 고등학생의 경우 85%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5품등 척도에 의한 점수의 평균차이에서 남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있었다(표 IV-32 참조). 즉,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정치인의 선거운동이 지역갈등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표 IV-31> 정치인의 선거운동

구 분		매우 크게 일으킴	크게 일으킴	그저 그렇다	적게 일으킴	매우 적게 일으킴
성 별	남 자	298(47.5)	174(27.7)	125(19.9)	22(3.5)	9(1.4)
	여 자	271(41.3)	210(32.0)	141(21.5)	21(3.2)	13(2.0)
연 령 별	중학생	258(37.1)	197(28.3)	191(27.4)	32(4.6)	18(2.6)
	고등학생	311(52.9)	187(31.8)	75(12.8)	11(1.9)	4(0.7)
전 체		569(44.3)	384(29.9)	266(20.7)	43(3.3)	22(1.7)

<표 IV-32> 정치인의 선거운동에 대한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성 별	남 자	628	4.16	0.96	1.64
	여 자	656	4.07	0.96	
연 령 별	중학생	696	3.93	1.03	-8.07***
	고등학생	588	4.34	0.82	

***p<.001

5) 신문 및 방송보도

<표 IV-33>은 신문 및 방송보도 요인에 대한 결과인데, 전체 학생들 중 40.8%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남녀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약 38%, 여자의 경우 약 44%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중

학생의 경우 약 40%, 고등학생의 경우 42%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IV-33> 신문 및 방송보도

구 분		매우 크게 일으킴	크게 일으킴	그저 그렇다	적게 일으킴	매우 적게 일으킴
성 별	남 자	98(15.6)	138(22.0)	284(45.2)	72(11.5)	36(5.7)
	여 자	107(16.3)	181(27.6)	277(42.2)	64(9.8)	27(4.1)
연령별	중학생	107(15.4)	169(24.3)	298(42.8)	82(11.8)	40(5.7)
	고등학생	98(16.7)	150(25.5)	263(44.7)	54(9.2)	23(3.9)
전 체		205(16.0)	319(24.8)	561(43.7)	136(10.6)	63(4.9)

이는 5품등 척도에 의한 점수의 평균차이에서 남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없었다(표 IV-34 참조). 즉,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신문 및 방송보도가 지역갈등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표 IV-34> 신문 및 방송보도에 대한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성 별	남 자	628	3.30	1.05	-2.09*
	여 자	656	3.42	1.01	
연령별	중학생	696	3.32	1.05	-1.76
	고등학생	588	3.42	1.00	

*p<.05

6) 역사적 배경

<표 IV-35>는 역사적 배경 요인에 대한 결과인데, 전체 학생들 중 27.0%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남녀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약 30%, 여자의 경우 약 24%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중학생의 경우 약 24%, 고등학생의 경우 31%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IV-35> 역사적 배경

구 분		매우 크게 일으킴	크게 일으킴	그저 그렇다	적게 일으킴	매우 적게 일으킴
성 별	남 자	73(11.6)	118(18.8)	290(46.2)	94(15.0)	53(8.4)
	여 자	50(7.6)	105(16.0)	334(50.9)	113(17.2)	54(8.2)
연 령 별	중학생	64(9.2)	102(14.7)	346(49.7)	116(16.7)	68(9.8)
	고등학생	59(10.0)	121(20.6)	278(47.3)	91(15.5)	39(6.6)
전 체		123(9.6)	223(17.4)	624(48.6)	207(16.1)	107(8.3)

이는 5품등 척도에 의한 점수의 평균차이에서 남녀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있었다(표 IV-36 참조). 즉, 남자 청소년들과 고등학생들이 여자청소년들과 중학생들보다 역사적 배경이 지역갈등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표 IV-36>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성 별	남 자	628	3.10	1.06	2.21*
	여 자	656	2.98	0.98	
연 령 별	중학생	696	2.97	1.04	-2.64**
	고등학생	588	3.12	1.01	

*p<.05, **p<.01

7) 지역 간 경제 · 문화수준 차이

<표 IV-37>은 지역 간 경제 · 문화수준 차이 요인에 대한 결과인데, 전체 학생들 중 55.9%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남녀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약 56%, 여자의 경우 약 51%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중학생의 경우 약 48%, 고등학생의 경우 65%가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5품등 척도에 의한 점수의 평균차이에서 남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있었다(표 IV-38 참조). 즉,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지역 간 경제 · 문화수준 차이가 지역갈등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표 IV-37> 지역 간 경제 · 문화수준 차이

구 분		매우 크게 일으킴	크게 일으킴	그저 그렇다	적게 일으킴	매우 적게 일으킴
성 별	남 자	171(27.2)	181(28.8)	196(31.2)	54(8.6)	26(4.1)
	여 자	166(25.3)	200(30.5)	223(34.0)	42(6.4)	25(3.8)
연 령 별	중학생	153(22.0)	183(26.3)	266(38.2)	59(8.5)	35(5.0)
	고등 학생	184(31.3)	198(33.7)	153(26.0)	37(6.3)	16(2.7)
전 체		337(26.2)	381(29.7)	419(32.6)	96(7.5)	51(4.0)

<표 IV-38> 지역 간 경제·문화수준 차이에 대한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성 별	남 자	628	3.66	1.09	-.11
	여 자	656	3.67	1.04	
연 령 별	중학생	696	3.52	1.08	-5.58***
	고등 학생	588	3.85	1.02	

***p<.001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느끼는 우리나라 지역감정의 원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주민간의 편견에 대해 전체 학생 중 54.4%,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에 대해 62.5%, 정부의 인사행정에 대해 57.9%, 정치인의 선거 운동에 대해 74.2%, 신문 및 방송보도에 대해 40.8%, 역사적 배경에 대해 27.0%, 지역 간 경제 · 문화수준 차이에 대해 55.9%가 지역감정을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에서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치인의 선거운동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의 경제발전정책, 정부의 인사행정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각 원인 중 청소년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의 선거운동, 정부의 경제발전정책, 정부의 인사행정에 대한 남녀 및 연령 차이를 살펴보면 정치인의 선거운동과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에서는 연령간에 차이가 나타나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더 큰 원인이라고 하였다. 정부의 인사행정에서는 남녀 및 연령간에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더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었다.

4. 지역갈등의 사회화

청소년들의 지역갈등에 대한 의식이 학교에서의 경험, 가정에서의 경험, 친구와의 경험을 통해 얼마나 사회화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께서부터의 경험,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자매로부터의 경험, 친구로부터의 경험으로 나누어 각 장면에서 청소년들이 지역갈등에 대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또 그 시기가 언제이기를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경험이 성별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한다.

1) 학교 선생님께서부터의 경험

학교 선생님께서부터의 경험에 대한 결과는 <표 IV-39>와 <표 IV-40>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39>는 특정 지역이나 그 지역사람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는 학교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는 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만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2.8%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중 22%가 주로 중학교시기에, 그리고 26.1%가 수업시간에 그러한 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9> 특정 지역이나 그 지역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시는 학교 선생님을 만난 경험의 유무, 경험시기 및 상황

구 분	빈도 (%)	경험한 시기	빈 도 (%)	그 학교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던 상황	빈 도 (%)
예	421(32.8)	유치원	1(0.1)	개인면담	9(0.7)
		초등학교	125(9.7)	여러 학생 속	95(7.4)
				수업시간	335(26.1)
		중학교	282(22.0)	여가시간	10(0.8)
		고등학교	94(7.3)	학교 내	51(4.0)
				학교 밖	16(1.2)
		기타	19(1.5)	기타	11(0.9)
아니오	863(67.2)				

<표 IV-40>은 특정 지역이나 그 지역사람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학교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는 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만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9.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0.5%가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시기에, 그리고 50.1%가 여러 학생 속에서와 수업시간에 그러한 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께서부터의 지역갈등에 대한 경험은 주로 중학교시기에 많이 이루어졌으며 수업시간이나 학생 집단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대한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학교 장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소년들이 이를 통해 지역갈등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40> 특정 지역이나 그 지역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시는 학교 선생님을 만난 경험의 유무, 경험시기 및 상황

구 분	빈도 (%)	경험한 시기	빈 도 (%)	그 학교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던 상황	빈 도 (%)
예	629(49.0)	유치원	16(1.2)	개인면담	16(1.2)
		초등학교	263(20.5)	여러 학생 속	177(13.8)
				수업시간	466(36.3)
		중학교	385(30.0)	여가시간	28(2.2)
		고등학교	112(8.7)	학교 내	70(5.5)
				학교 밖	17(1.3)
		기타	25(1.9)	기타	21(1.6)
아니오	655(51.0)				

2) 가족으로부터의 경험

가족으로부터의 경험에 대한 결과는 <표 IV-41>, <표 IV-42>와 <표 IV-43>에 제시되어 있다. 가족 중 누군가 어떤 지역이나 그 지역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32.2%이었다(<표 IV-41 참조>).

<표 IV-41> 가족이 어떤 지역이나 그 지역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경험의 유무

구 분	빈 도	퍼센트(%)
있 다	414	32.2
없 다	870	67.8
전 체	1,284	100.0

지역감정과 관련된 말을 가족 중 아버지(36.3%), 어머니(24.3%), 친척(24.9%)으로부터 들어 본 것으로 나타났다(표 IV-42 참조). 그러나, 가족 중 누군가 부모 또는 자신의 출신도 때문에 특별히 경험한 것은 없는(87.8%)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험한 것 중에는 인간적 모욕(3.6%)이 있었다(표 IV-43 참조).

<표 IV-42> 가족 중 누군가 부모 또는 자신의 출신도 때문에 경험한 것

구 분	빈 도	퍼센트(%)
인간적 모욕	46	3.6
금전(물질)적 손해	24	1.9
취업상의 불이익	15	1.2
승진상의 불이익	10	0.8
소속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	19	1.5
없 다	1,127	87.8

<표 IV-43> 지역감정과 관련된 말을 가족 중 누구로부터 들어 봄

구 분	빈 도	퍼센트(%)
아버지	466	36.3
어머니	312	24.3
형(오빠)	39	3.0
누나(언니)	57	4.4
동생	17	1.3
할아버지	91	7.1
할머니	114	8.9
친척	320	24.9

3) 친구로부터의 경험

친구로부터의 경험에 대한 결과는 <표 IV-44>, <표 IV-45>와 <표 IV-46>에 제시되어 있다.

친구로부터 특정 지역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 학생들은 33.6%이었으나(표 IV-44 참조), 싫어하는 지역출신의 학생이 학급반장으로 출마했을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역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표 IV-45 참조).

<표 IV-44> 친구로부터 특정 지역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의 유무

구 분	빈 도	퍼센트(%)
있 다	432	33.6
없 다	852	66.4
전 체	1,284	100.0

<표 IV-45> 싫어하는 지역 출신의 학생이 학급반장에 출마했을 경우

구 분		절대로 지지하겠다	지지 하겠다	상관없다	지지하지 않겠다	절대로 지지하지 않겠다
성 별	남 자	6(1.0)	36(5.7)	533(84.9)	31(4.9)	22(3.5)
	여 자	6(0.9)	23(3.5)	563(85.8)	35(5.3)	29(4.4)
연령 별	중학생	9(1.3)	37(5.3)	592(85.1)	28(4.0)	30(4.3)
	고등학생	3(0.5)	22(3.7)	504(85.7)	38(6.5)	21(3.6)
전 체		12(0.9)	59(4.6)	1,096(85.4)	66(5.1)	51(4.0)

이를 5품등 척도의 점수에 의해 평균 차이를 알아보았을 때 남녀간에 그리고 연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IV-46 참조).

<표 IV-46> 싫어하는 지역 출신의 학생이 학급반장에 출마했을 경우에 대한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성 별	남 자	628	3.04	0.53	-1.51
	여 자	656	3.09	0.54	
연령 별	중학생	696	3.05	0.56	-1.37
	고등학생	588	3.09	0.51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학교, 가정, 친구로부터 특정 지역이나 그 지역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의외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 한 것은 학교에서는 주로 수업시간에

이러한 경험이 이루어졌고,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이러한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의 주원인으로 국가의 정책을 들고 있지만 지역감정과 관련된 경험은 주로 학교나 가정에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지역갈등의 해소방안에 대한 청소년 의식

우리나라 지역갈등의 해소방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역갈등이 어떻게 될 것 인지과 이에 대한 성별 차이 및 연령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갈등이 해소될 것 인지의 여부와 해소된다면 몇 년 후가 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앞으로 지역갈등의 정도에 대한 지각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역갈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에 대한 결과는 <표 IV-47>과 같다. 전체의 경우 모르겠다가 가장 많은 비율(약 40%)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조금 더 심해질 것이라 보는 청소년들의 비율과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모르겠다가 가장 많은 비율(약 40%)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조금 더 심해질 것이라는 비율(약 30%)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자의 경우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비율(26%)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이 좀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즉, 중학생의 경우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비율이

25%를 차지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 조금 더 심해질 것이라는 비율이 약 35%를 차지하였다.

<표 IV-47> 앞으로 우리나라 지역갈등의 정도에 대한 추측

구 분		더욱 심해짐	조금 더 심해짐	모르겠다	조금 완화됨	매우 완화됨
성 별	남 자	21(3.3)	185(29.5)	253(40.3)	108(17.2)	61(9.7)
	여 자	7(1.1)	152(23.2)	254(38.7)	170(25.9)	73(11.1)
연 령 별	중학생	15(2.2)	134(19.3)	291(41.8)	172(24.7)	84(12.1)
	고등학생	13(2.2)	203(34.5)	216(36.7)	106(18.0)	50(8.5)
전 체		134(10.4)	278(21.7)	507(39.5)	337(26.2)	28(2.2)

이를 5품등 척도 점수에 의해 남녀 및 연령별 평균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IV-48 참조), 남녀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들과 고등학생들이 여자 청소년들과 중학생들보다 지역갈등에 대해 좀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갈등이 앞으로 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표 IV-48> 앞으로 우리나라 지역갈등의 정도에 대한 추측의 성 및 연령차

구 분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성 별	남 자	628	3.00	1.00	-4.09***
	여 자	656	3.23	.96	
연령 별	중학생	696	3.25	.97	5.35***
	고등학생	588	2.96	.98	

***p<.001

2) 지역갈등의 해소여부에 대한 지각

우리나라의 지역갈등이 해소될 것인지에 대한 결과는 <표 IV-49>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이 해소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해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 학생들 중 44.9%가 해소될 것이라고 하였고, 55.1%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 및 연령별로 구분한 결과에서는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남학생들과 중학생들의 비율이 각각 24.8%와 24.1%로 나타나 여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비율(각각 20.0%, 20.8%)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49>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이 해소될 것 인지의 여부

구 분		예	아니오	χ^2
전 체		576(44.9)	708(55.1)	
성 별	남자	319(24.8)	309(24.1)	17.51***
	여자	257(20.0)	399(31.1)	
연령 별	중학생	309(24.1)	387(30.1)	.13
	고등학생	267(20.8)	321(25.0)	

***p<.001

우리나라의 지역갈등이 해소된다면 몇 년 후쯤 해소될 것인지에 대한 결과는 <표 IV-50>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감정이 해소된다면 몇 년 후쯤 해소될 것인가에 대해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평균 14.5년이라고 하였고, 남학생의 경우 평균 15.1년, 여학생의 경우 평균 13.8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중학생의 경우 평균 13.4년,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15.7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이 지역감정이 해소되는데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표 IV-50> 해소된다면 몇 년 후쯤 해소

구 분		사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성 별	남 자	319	15.1	13.1	1.12
	여 자	257	13.8	11.7	
연 령 별	중학생	309	13.4	12.1	-2.19*
	고등학생	267	15.7	12.9	
전 체		576	14.5	12.5	

* $p < .05$

3) 지역갈등의 해소방안에 대한 의식

(1) 지역갈등 해소방안의 유무에 대한 의식

우리나라의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과는 <표 IV-5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5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럼 전체 학생들 중 68.6%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31.4%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비록 지역갈등이 장래에 해소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표 IV-51> 지역갈등 해소방안의 유무

구 분	빈 도	퍼센트(%)
있 다	881	68.6
없 다	403	31.4
전 체	1,284	100.0

(2) 지역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의식

지역갈등 해소방안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그 해소방안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가 <표 IV-52>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감정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중 78.1%가 지역 간 교류확대를 가장 중요한 해소방안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71.4%가 지역 간 경제차이 해소를 꼽았고, 64.4%가 정치적인 노력, 63.2%가 지역주민 간 오해 해소를 중요한 해소방안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차이의 극복과 교류확대가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2> 지역갈등 해소방안

해 소 방 안	빈 도	퍼센트(%)
청소년운동 전개	239	27.1
범시민운동 전개	281	31.9
주역주민 간 오해 해소	557	63.2
지역 간 경제차이 해소	629	71.4
정치적인 노력	567	64.4
지역 간 교류확대	688	78.1
교통시설 확충	258	29.3
지역을 고려한 인물(인재)의 등용	215	24.4
학교교육을 통한 노력	346	39.3
법적 제도의 마련	197	22.4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2. 제 언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지역감정의 초기 사회화 과정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청소년들의 지역감정에 대한 태도와 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역감정의 문제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검토하여 지역감정 문제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감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이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감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종합적인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지역감정에 대한 의식실태 및 특징에서, 전체 1,284명의 청소년들 중 85.1%가 현재 우리나라에 지역감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 중 과반수(약 76%) 이상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남녀별로 구분하였을 때 남학생들 중 81.8%, 여학생들 중 88.3%가 현재 우리나라에 지역감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남(약 78%) 여(약 73%) 모두 그 정도가 심각 또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구분하였을 때 중학생들 중 76.3%, 고등학생들 중 95.6%가 현재 우리나라에 지역감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심각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중학생들의 경우 69.4%, 고등학생들의 경우 81.6%가 심각 또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t검증의 결과는 연령별 차이가 유의하여 고등학생들(M=3.95)이 중학생들(M=3.76)

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지역출신이 집권하느냐가 출신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체 학생들 중 72%가 약간 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남녀별로 구분하였을 때 남학생들 중 74.1%, 여학생들 중 70.1%가 약간 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연령별로 구분하였을 때 중학생들 중 59.8%, 고등학생들 중 86.6%가 약간 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남녀별 및 연령차가 유의하여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었다.

타도·타지역 출신사람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서는 전체 학생들 중 지역출신 사람과의 접촉 요인에 대해 36.6%, TV·라디오·신문 요인에 대해 42.4%, 부모·형제 요인에 대해 23.2%, 친구 요인에 대해 21.1%, 학교선생님 요인에 대해 20.8%가 약간 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대중매체가 타도·타지역 출신사람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라디오·신문에 대해서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고 있었다.

둘째, 청소년들이 느끼는 우리나라 지역감정의 원인에서 지역주민 간의 편견에 대해 전체 학생 중 54.4%,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에 대해 62.5%, 정부의 인사행정에 대해 57.9%, 정치인의 선거운동에 대해 74.2%, 신문 및 방송보도에 대해 40.8%, 역사적 배경에 대해 27.0%, 지역 간 경제·문화수준 차이에 대해 55.9%가 지역감정을 크게 또는 매우 크게 일으킨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에서 지역감정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치인의 선거운동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의 경제발전정책, 정부의 인사행정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각 원인 중 청소년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의 선거운동, 정부의 경제발전정책, 정부의 인사행정에 대한 남녀 및 연령 차이를 살펴보면

정치인의 선거운동과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에서는 연령간에 차이가 나타나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더 큰 원인이라고 하였다. 정부의 인사행정에서는 남녀 및 연령간에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더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었다.

셋째, 청소년의 지역감정이 학교, 가정, 친구를 통해 사회화되는 과정에 대해 특정 지역이나 그 지역사람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는 학교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가 주로 중학교시기에, 그리고 26.1%가 수업시간에 그러한 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이나 그 지역사람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학교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9.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0.5%가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시기에, 그리고 50.1%가 여러 학생 속에서의 수업시간에 그러한 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누군가 어떤 지역이나 그 지역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32.2%이었고, 지역감정과 관련된 말을 가족 중 아버지(36.3%), 어머니(24.3%), 친척(24.9%)으로부터 들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중 누군가 부모 또는 자신의 출신도 때문에 특별히 경험한 것은 없는(87.8%)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험한 것 중에는 인간적 모욕(3.6%)이 있었다.

친구로부터 특정 지역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 학생들은 33.6%이었으나 싫어하는 지역출신의 학생이 학급반장으로 출마했을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역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학교, 가정, 친구로부터 특정 지역이나 그 지역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의외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 한 것은 학교에서는 주로 수업시간에 이러한 경험이 이루어졌고,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이러한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의 주원인으로 국가

의 정책을 들고 있지만 지역감정과 관련된 경험은 주로 학교나 가정에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지역감정 해소방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이 해소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해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 학생들 중 44.9%가 해소될 것이라고 하였고, 55.1%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 및 연령별로 구분한 결과에서는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남학생들과 중학생들의 비율(각각 24.8%, 24.1%)이 여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비율(각각 20.0%, 20.8%)보다 높았다.

지역감정이 해소된다면 몇 년 후쯤 해소될 것인가에 대해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평균 14.5년이라고 하였고, 남학생의 경우 평균 15.1년, 여학생의 경우 평균 13.8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중학생의 경우 평균 13.4년,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15.7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이 지역감정이 해소되는데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들 중 68.6%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비록 지역감정이 장래에 해소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지역감정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중 78.1%가 지역 간 교류확대를 가장 중요한 해소방안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71.4%가 지역 간 경제차이 해소를 꼽았고, 64.4%가 정치적인 노력, 63.2%가 지역주민 간 오해 해소를 중요한 해소방안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차이의 극복과 교류확대가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언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을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학교 및 가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감정의 초기 사회화의 예방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소년들이 타 지역이나 지역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주로 학교선생님이나 가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을 통하여 이를 예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지역감정은 오랫동안 지속·누적되어온 현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청소년운동 전개

이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아직까지 청소년들 사이에는 타 지역이나 지역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기성세대나 성인들에 비해 적은 것 같다. 따라서 타지역이나 지역사람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형성하기 전 청소년들로 구성된 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청소년운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 간 청소년교류의 활성화

대학수준에서 타지역 학생들간의 교류는 지금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교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암시하는 것처럼 또래 또는 친구집단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크다. 따라서 방학을 이용하여 캠프 프로그램을 만들어 타지역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공동목표를 향하여 협력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방법 등의 지역 간 청소년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 내용의 개선

고정관념은 일단 형성되면 수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고정관념의 수정 어려움 때문에 고정관념은 형성되기 이전이나 형성 초기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성인이 이전의 학교교육에서 고정관념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89). 지역감정 해소방안 연구, 대구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동영(1994). 영·호남지역 감정의 형성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정치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만흠(1987). 한국사회 지역갈등 연구 : 영·호남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 현대사회연구소.
- 김만흠(1987). 한국사회 지역갈등 연구, 서울 : 현대사회연구소.
- 김만흠(1991). 한국의 정치균열에 관한 연구-지역균열의 정치과정에 대한 구조적 접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호(1992). 지역감정문제에 대한 영·호남 언론인간의 상호정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국(1977). 한국 대학생의 지역적 편견 연구. 전국 대학생 학술연구발표논문집, 12, pp. 11~40.
- 김진국(1984). 지역민간의 편견적 태도연구.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16, 119~130.
- 김진국(1989). 지역감정의 실상과 그 해소방안. 한국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 성원사.
- 김진국(1992). 지역감정의 실상과 그 해소방안. 한국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 221-253), 서울 : 성원사.
- 김혜숙(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1988년도 춘계 심포지움.
- 김혜숙(1989).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 37-62), 서울 : 성원사.

- 김혜숙(1992).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 123-169), 서울 : 성원사.
- 남영신(1991). 지역패권주의의 한국, 서울 : 학민사.
- 박용남(1989). 오늘의 지역감정 실태.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pp. 53-55), 서울 : 성원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89). 지역감정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윤근섭(1990). 지역감정과 지역격차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종합.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p. 261), 서울 : 성원사.
- 이진숙(1959). 팔도인 성격특성에 대한 선입관념. 사상계, 12.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1989). 지역감정 해소방안 연구, 광주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조경근(1987). 영호남 지역감정 연구. 월간조선, 9, pp. 196~211.
- 조경근(1987). 정치사회학의 시각에서 본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의 실체와 악화 및 그 해소. 한국정치학회·제북미·한국인 정치학자회 합동 학술대회.
- 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1991). 지역감정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서울 : 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
- 최장집(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 나남출판사.
- 최협(1986). 지역발전과 지역의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연구(pp. 101~142), 서울 : 구미무역.
-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1989). 지역감정 해소방안 연구, 대전 :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한국사회학회(1989).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 성원사.
- 한국심리학회(1989).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 성원사.
- 한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1989). 지역감정 해소방안 연구, 원주 : 한남대

학교 지역개발연구소.

Allport, G. 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ss. : Addison-Wesley.

Ashmore, R. D., & Del Boca, F. K.(1976). Psychologic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intergroup conflict. In P. A. Katz(Ed.), Toward the elimination of racism. New York : Pergamon.

Ashmore, R. D., & Del Boca, F. K.(1981). Conceptu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intergroup conflict. In P. A. Katz(Ed.), Toward the elimination of racism. New York : Pergamon.

Brigham, J. C.(1971). Ethnic stereotype. Psychological Bulletin, 76, 15-38.

부 록

1. 지역갈등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
설문지

--	--	--	--

지역갈등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청소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원에서는 올해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청소년운동 전개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본 설문지는 청소년들의 지역감정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의견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대한 답은 정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은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1월

<주의사항>

* 설문에 대한 응답은 하나만 선택하는 것과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만 골라 주시고,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개수만큼 골라 주십시오.

한국청소년개발원

(우)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문의처 : 주 동 범

(전화: (02)2188-8831/팩스: (02)2188-8819/E-mail:

judong@youthnet.re.kr)

다음은 당신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나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17번)

1. 성별: ____①남자 ____②여자

2. 연령: _____세

3. 학생: ____①중학생 ____②고등학생

3-1. 고등학생일 경우: ____①인문계 ____②실업계

4. 나의 출생지역:

____①서울 ____②경기 ____③강원 ____④충북 ____⑤충남 ____⑥전북
____⑦전남 ____⑧경북 ____⑨경남 ____⑩제주 ____⑪기타

5. 나의 현재 생활지역:

____①서울 ____②경기 ____③강원 ____④충북 ____⑤충남 ____⑥전북
____⑦전남 ____⑧경북 ____⑨경남 ____⑩제주 ____⑪기타

6. 아버지의 학력(중퇴도 졸업에 포함, 예: '고등학교 중퇴'는 '고졸'에):

____①초졸 ____②중졸 ____③고졸
____④대졸 ____⑤대학원졸(석·박사) ____⑥기타

7. 어머니의 학력(중퇴도 졸업에 포함, 예: '고등학교 중퇴'는 '고졸'에):

___①초졸 ___②중졸 ___③고졸
___④대졸 ___⑤대학원졸(석·박사) ___⑥기타

8. 아버지의 고향:

___①서울 ___②경기 ___③강원 ___④충북 ___⑤충남 ___⑥전북
___⑦전남 ___⑧경북 ___⑨경남 ___⑩제주 ___⑪이북5도
___⑫기타

9. 어머니의 고향:

___①서울 ___②경기 ___③강원 ___④충북 ___⑤충남 ___⑥전북
___⑦전남 ___⑧경북 ___⑨경남 ___⑩제주 ___⑪이북5도
___⑫기타

10. 성인이 되었을 때 당신이 살고 싶은 지역을 순서대로 번호를 빈칸에 쓰시오.

___서울 ___경기 ___강원 ___충북 ___충남
___전북 ___전남 ___경북 ___경남 ___제주

11. 전국에서 당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순서대로 번호를 빈칸에 쓰시오.

___서울 ___경기 ___강원 ___충북 ___충남
___전북 ___전남 ___경북 ___경남 ___제주

12. 만약 타 시도로 이주한다면 당신이 적응하기에 쉽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순서대로 번호를 반칸에 쓰시오.

___서울 ___경기 ___강원 ___충북 ___충남
___전북 ___전남 ___경북 ___경남 ___제주

13.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___①매우 자랑스럽다 ___②자랑스럽다 ___③그저 그렇다
___④부끄럽다 ___⑤매우 부끄럽다

14.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___①매우 자랑스럽다 ___②자랑스럽다 ___③그저 그렇다
___④부끄럽다 ___⑤매우 부끄럽다

15. 당신은 현재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①서울 ___②경기 ___③강원 ___④충북 ___⑤충남 ___⑥전북
___⑦전남 ___⑧경북 ___⑨경남 ___⑩제주 ___⑪기타

16. 자신 혹은 부모님의 출신지역(출신도)을 밝히기를 싫어 한 적이 있습니까?

___①매우 자주 있었음 ___②자주 있었음 ___③그저 그렇다
___④별로 없었음 ___⑤전혀 없었음

17. 당신은 어느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친근감을 느낍니까?

___①서울 ___②경기 ___③강원 ___④충북 ___⑤충남
___⑥전북 ___⑦전남 ___⑧경북 ___⑨경남 ___⑩제주
___⑪지역별 차이 없음

다음은 당신의 학교나 가정에서의 경험, 친구와의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나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24번)

18. 당신은 특정 지역이나 그 지역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시
는 학교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___①예 ___②아니오

18-1. 경험을 한 때는 언제입니까?(18번에서 “예”라고 답한 사람
만 답하십시오) (해당 난에 모두 표기하십시오)

___①유치원 ___②초등학교 ___③중학교
___④고등학교 ___⑤기타

18-2. 그 학교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던 상황은?(18번에서 “예”라
고 답한 사람만 답하십시오) (해당 난에 모두 표기하십시오)

___①개인면담에서 ___②여러 학생들 속에서
___③수업시간에 ___④여가시간에
___⑤학교 내에서 ___⑥학교 밖에서
___⑦기타

19. 당신은 특정 지역이나 그 지역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시
는 학교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___①예 ___②아니오

19-1. 경험을 한 때는 언제입니까?(19번에서 “예”라고 답한 사람만
답하십시오) (해당 난에 모두 표기하십시오)

___①유치원 ___②초등학교 ___③중학교
___④고등학교 ___⑤기타

19-2. 그 학교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던 상황은?(19번에서 “예”라고 답한 사람만 답하시오) (해당 난에 모두 표기하시오)

- ___①개인면담에서 ___②여러 학생들 속에서
___③수업시간에 ___④여가시간에
___⑤학교 내에서 ___⑥학교 밖에서
___⑦기타

20. 당신은 가족이 어떤 지역이나 그 지역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 ___①있다 ___②없다

21. 우리 집 가족 중 누군가 부모 혹은 자신의 출신도 때문에 다음 중 경험한 일은?(해당 난에 모두 표기하시오)

- ___①인간적 모욕 ___②금전적 손해(물질적 손해)
___③취업상의 불이익 ___④승진상의 불이익
___⑤소속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 ___⑥없다

22. 당신은 지역감과 관련된 말을 가족 중 누구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 난에 모두 표기하시오)

- ___①아버지 ___②어머니 ___③형(오빠) ___④누나(언니)
___⑤동생 ___⑥할아버지 ___⑦할머니 ___⑧친척

23. 당신은 친구로부터 특정 지역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___①있다 ___②없다

24. 당신이 싫어하는 지역 출신의 학생이 학급반장에 출마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___①절대로 지지하겠다 ___②지지하겠다 ___③상관없다
___④지지하지 않겠다 ___⑤절대로 지지하지 않겠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역갈등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 의견 등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나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25번-35번)

25. 당신은 현재 우리나라에 지역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예 ___②아니오

25-1. 있다면 현재 지역갈등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고 있습니까?(25번에서 “예”라고 답한 사람만 답하십시오)

- ___①대단히 심각하다 ___②심각하다 ___③그저 그렇다
___④별로 심각하지 않다 ___⑤전혀 심각하지 않다

26. 당신은 어느 지역출신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출신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___①매우 큰 영향을 미침 ___②약간 영향을 미침
___③그저 그렇다 ___④별 영향을 미치지 않음
___⑤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27. 당신은 다음이 우리나라의 지역갈등을 얼마나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매 우			매 우		
	크	게	크	게	그	저
	적	게	적	게	적	게
	일으킴	일으킴	그렇다	일으킴	일으킴	일으킴
27-1. 지역주민간의 편견.....	①	②	③	④	⑤	
27-2. 정부의 경제발전정책.....	①	②	③	④	⑤	
27-3. 정부의 인사행정.....	①	②	③	④	⑤	
27-4. 정치인의 선거운동.....	①	②	③	④	⑤	
27-5. 신문 및 방송보도.....	①	②	③	④	⑤	
27-6. 역사적 배경.....	①	②	③	④	⑤	
27-7. 지역간 경제·문화수준 차이.	①	②	③	④	⑤	

28.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역갈등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___②조금 더 심해질 것이다
 ___③모르겠다 ___④조금 완화될 것이다
 ___⑤매우 완화될 것이다

29. 당신은 우리나라의 지역갈등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___①예 ___②아니오

29-1. 해소된다면 지금부터 몇 년 후쯤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29번에서 “예”라고 답한 사람만 답하십시오)

_____년 후

30. 타도 · 타지역 출신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별 로 전 혀				
	매우 큰 약 간				
	영향을	영향을	그 저	미치지	미치지
	미쳤음	미쳤음	그렇다	않았음	않았음
30-1. 지역출신 사람과의 접촉...	①	②	③	④	⑤
30-2. TV, 라디오, 신문.....	①	②	③	④	⑤
30-3. 부모 · 형제.....	①	②	③	④	⑤
30-4. 친구.....	①	②	③	④	⑤
30-5.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31. 당신은 다음의 경우에 각 지역 출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1. 당신의 친척 중에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면

31-2. 같은 팀이나 그룹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매우 찬성	찬성	모르 겠다	반대	매우 반대
서울	①	②	③	④	⑤
경기	①	②	③	④	⑤
강원	①	②	③	④	⑤
충북	①	②	③	④	⑤
충남	①	②	③	④	⑤
전북	①	②	③	④	⑤
전남	①	②	③	④	⑤
경북	①	②	③	④	⑤
경남	①	②	③	④	⑤
제주	①	②	③	④	⑤
이북 5도	①	②	③	④	⑤

	매우 찬성	찬성	모르 겠다	반대	매우 반대
서울	①	②	③	④	⑤
경기	①	②	③	④	⑤
강원	①	②	③	④	⑤
충북	①	②	③	④	⑤
충남	①	②	③	④	⑤
전북	①	②	③	④	⑤
전남	①	②	③	④	⑤
경북	①	②	③	④	⑤
경남	①	②	③	④	⑤
제주	①	②	③	④	⑤
이북 5도	①	②	③	④	⑤

31-3. 가까운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매우 찬성	찬성	모르 겠다	반대	매우 반대
서울	①	②	③	④	⑤
경기	①	②	③	④	⑤
강원	①	②	③	④	⑤
충북	①	②	③	④	⑤
충남	①	②	③	④	⑤
전북	①	②	③	④	⑤
전남	①	②	③	④	⑤
경북	①	②	③	④	⑤
경남	①	②	③	④	⑤
제주	①	②	③	④	⑤
이북 5도	①	②	③	④	⑤

31-4.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게 된다면

	매우 찬성	찬성	모르 겠다	반대	매우 반대
서울	①	②	③	④	⑤
경기	①	②	③	④	⑤
강원	①	②	③	④	⑤
충북	①	②	③	④	⑤
충남	①	②	③	④	⑤
전북	①	②	③	④	⑤
전남	①	②	③	④	⑤
경북	①	②	③	④	⑤
경남	①	②	③	④	⑤
제주	①	②	③	④	⑤
이북 5도	①	②	③	④	⑤

32. 당신은 다음의 각 지역 출신 사람들을 어느 정도 좋아하십니까?

	매 우 좋아한다	좋 아 한 다	그 저 그렇다	싫 어 한 다	매 우 싫어한다
서울	①	②	③	④	⑤
경기	①	②	③	④	⑤
강원	①	②	③	④	⑤
충북	①	②	③	④	⑤
충남	①	②	③	④	⑤
전북	①	②	③	④	⑤
전남	①	②	③	④	⑤
경북	①	②	③	④	⑤
경남	①	②	③	④	⑤
제주	①	②	③	④	⑤

33.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다음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주 크 다	크 다	그 저 그렇다	작 다	아 주 작 다
33-1. 여당과 야당.....	①	②	③	④	⑤
33-2. 특권층과 서민층.....	①	②	③	④	⑤
33-3. 기업주와 근로자.....	①	②	③	④	⑤
33-4.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①	②	③	④	⑤
33-5. 도시사람과 농촌사람.....	①	②	③	④	⑤
33-6. 호남사람과 영남사람.....	①	②	③	④	⑤

34. 당신은 우리나라의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예 ___②아니오

34-1. 있다면 그 해소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4번에서 “예”라고 답한 사람만 답하시오) (해당 난에 모두 표기하시오)

- ___①청소년운동 전개 ___②범시민운동 전개
 ___③지역주민간 오해 해소 ___④지역간 경제차이 해소
 ___⑤정치적인 노력 ___⑥지역간 교류확대
 ___⑦교통시설 확충
 ___⑧지역을 고려한 인물(인재)의 이용
 ___⑨학교교육을 통한 노력 ___⑩법적 제도의 마련

35. 당신은 다음 사항이 지역갈등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별 로 전 혀				
	크	게	다	소	그
	기	여	기	여	그
	렇	다	못	함	못
	함	못	함	못	함
35-1. 지역간 경제격차의 해소.....	①	②	③	④	⑤
35-2. 인물등용의 지역안배.....	①	②	③	④	⑤
35-3. 지역간 교류증진.....	①	②	③	④	⑤
35-4. 동서간의 교통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35-5. 민주화.....	①	②	③	④	⑤
35-6.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	①	②	③	④	⑤
35-7. 정치지도자들의 세대.....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지역사람들의 이미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 의견 등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나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36번)

36. 부모님이나 주변사람들의 말을 통해 들어보면 각 지역사람들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다르다고들 합니다. 다음 각 이미지에 대해 당신은 각 지역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번호는 ①은 매우, ②는 약간, ③은 판단 불가능, ④는 약간, ⑤는 매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보수 ↔ 진보에서 ①은 매우 보수, ②는 약간 보수, ③은 진보나 보수를 판단할 수 없음, ④는 약간 진보, ⑤는 매우 진보를 나타냅니다.

대상지역	보수↔진보	소극↔적극	무뚝뚝↔상냥	고지식↔음통	느림↔ 빠름
36-1. 서울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6-2. 경기도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6-3. 강원도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6-4. 충청도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6-5. 전라도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6-6. 경상도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36-7. 제주도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